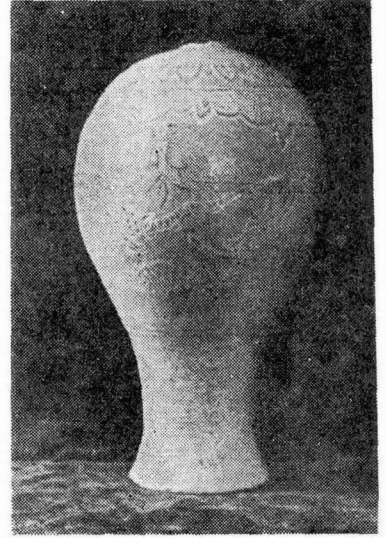


로 매우稚氣있는 솜씨로 楊柳文을 두르고 그 一面에는 芝草狀의 草文이 象嵌되어 있다. 어개部分에는 高麗靑磁의 伏紗文에서 退化된 것으로 보이는 蓮瓣을 中心으로 한 무늬가 둘러 있는 데 이



伏紗文狀의 무늬는 「沙籠介」銘梅瓶의 경우도 거의類似的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이 두개의 瓶에서 「沙籠介」와 「籠介」는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지는 있을 만한 文獻을 모두 뒤져 보았으나 찾아 볼 수 없었고 다만 「崔元」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高麗史 世家卷二十六 二十五葉 三行에 元宗十年條記事에 「縣令崔元」이란 이름이 보이고 그 以前으로는 高麗史 世家卷四 顯宗二年四月條에 「別將崔元」同一年正月條에 「戶部尙書崔元」東史綱目에 보이는 新羅孝恭王代에 唐에 使臣갔던 「慶賀使判官崔元」 등의 이름이 보이지만 모두 이 梅瓶의 製作年代에 符合되는 時代의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 이름조차 別로 큰 期待는 없게 되었다.

대체로 이 梅瓶의 器形과 技法으로 짐작되는 時代樣式은 麗末李朝初의 것으로 보여짐에 아마도 十四世紀 後半頃の 作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類型的 作品으로서 在銘의 例를 들면 德壽宮美術館所藏의 乙酉司醞署銘梅瓶과 義成庫銘梅瓶이 있으며 前者는 대체로 忠穆王元年乙酉의 作品으로 推定되었고 後者는 李太祖 元年으로부터 太宗二年까지의 사이에 된 作品으로 判明되고 있다. 그러나 이 崔元銘梅瓶은 器形으로 보아서 乙酉司醞署銘梅瓶보다는 義成庫銘梅瓶에 더類似的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瓶은 乙酉司醞署銘梅瓶과 義成庫銘梅瓶사이의 約半世紀동안의 어느 時期의 作品으로 볼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된 것이다. 이 梅瓶의 釉色은 洋灰色에 가까운 發色이며 굽은 施釉가 充分치 못했던 듯엿은 赭色

을 보인部分이 있으며 굽도리가 매우 넓은 扁平한 앞은 굽이다. 병입은 缺損되어 있으며 높이는 現在高二九·三cm 最大胴徑은 一六·七cm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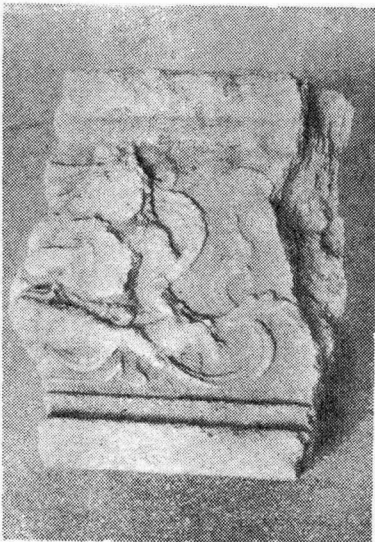
- ① 陶器大辭典
- ②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一〇三頁
- ③ 註②

### 石製奏樂像

秦 弘 燮

慶北大學校 附屬博物館에 奏樂像이 彫刻된 조그마한 石片이 保管되어 있다. 높이 二·六·五cm 두께 一〇cm의 石材로서 奏樂像만 남고 左右가 切斷되었는데 現在의 길이는 上部 一五·八cm 下部 一七cm로서 浮屠基壇部같은 데 있었던 石材로 推測된다. 彫刻面은 上下로 二段의 層을 두르고 길이 一·六cm의 凹面을 만들어서 彫刻面의 높이가 一六·七cm가 되게 하였다. 이 部材는 原來 옆으로 긴 石材로서 이 奏樂像 左右에 도다 큰 像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彫刻된 像은 두 손으로 琵琶를 잡고 彈奏하는 座像이다. 顔面은 磨損되었으며 樂器를 잡은 左手가 缺損되었는데 原石에 破損된 자리가 없고 左手팔목에서 切斷되었으며 琵琶의 끝도 切斷된點으로 보아 이 部分만은 圓刻하였던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蓮座위에



엮힌 다리에 걸쳐 있는 衣文은 매우 아름답고 自然스럽다. 比較的 큰 琵琶를 오른손으로 안고 왼팔꿈을 무릎 위에 얹고 자루를 잡았던 듯하다. 목에는 한 줄 목걸이를 걸었고 머리카락이 옆으로 늘어졌고 天衣는前後左右로 날리고 있다.

비록 적은 像이지만 各部分의 彫刻은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全體의 均衡도 整頓되었다. 蓮花의 表現이나 天衣의 流暢한 線等은 八世紀 中葉 新羅彫刻美術이 가장 圓熟했을 때의 다른 作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恰似하다.

奏樂像은 石製、金屬製를 莫論하고 他例를 볼 수 있으나 이와같이 洗練된 手法를 보여 주는 예는 드물다. 이 石材는 左右로 더 連結되었으니 라는 點은 一見하여 짐작되는 데 이 左右에 어떠한 像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매우 哀惜한 일이다.

### 扶餘 長蝦里石塔의 舍利藏置

金 永 培

#### 一、舍利具의 發見經緯

一九六二年 八月 忠南 扶餘郡 場岩面 長蝦里에 있는 三層石塔이 解體 復原修理를 하게 되어 筆者가 監督의 任務를 띄고 八月 二十三日 現場에 到着하여 石塔을 解體하게 되었는데 이 方形三層石塔의 保存狀態는 매우 危險한 程度로 基壇石이 많이 攪亂되고 基壇面石이 一枚 缺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塔基壇部에서는 過去에 鍍金 木製小塔과 象牙小佛이 發見되어 現在 扶餘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 故로 過去에 解體되었던 塔이 아닌가도 생각되었으나 二層屋身에 이르러 屋身 上面에 塵埃物이 全面에 덮혀 있고 屋身中央에는 圓形舍利孔이 나타났다. (孔徑 七cm 深 十二cm) 孔口는 香木片을 圓形으로 작아서 瓶마개하듯이 끼었는데 木片이 腐蝕되어 若干만이 남아 있었고 孔內는 紫丹香 粉末로써 充滿되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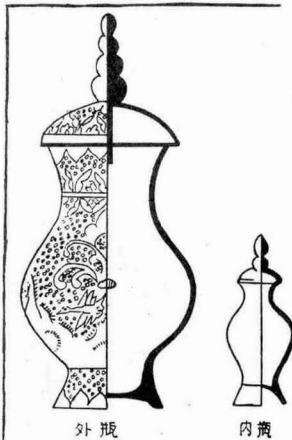
으며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舍利具를 發見할 수 있었다. 卽 舍利具를 布片에 싸서 孔內에 安置하고 空間에는 舍利器가 搖動되지 않도록 香末로 補填되어 있었던 것이다.

#### 二、舍利具

前記한 바와 같이 舍利器는 紋儀가 들어 있는 絹織物로서 外部를 한번 싸고 內部를 楮紙로서 다시 싸았는데 楮紙는 거의 消滅되었으나 絹織物만은 若干 腐蝕되었을 뿐으로 絹質을 알아낼 수 있는 程度이고 舍利具는 外瓶과 內瓶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詳記하면 다음과 같다.

#### A、外瓶과 舍利

外瓶은 金銅製臺付有蓋瓶인데 鍍金은 거의 剝落되어서 若干의 痕跡이 남아 있을 뿐이고 瓶全體에는 緻密한 紋樣이 陰刻되어 있는데 靑鏤이 全體를 덮고 있어서 肉眼으로는 識別키 困難하다. 瓶 胴體에는 兩耳가 付鑄되어 있고 兩耳에는 共히 靑銅鐵系로서 長卵形으로 된 連鎖環이 달려 있는데 한 쪽은 十一環이고 한 쪽은 十二環이 連結되어 있다. 瓶 外部에는 緻密한 線彫로서 山水、飛鳥를 彫鏤하고 瓶의 頸部에는 亦是 線彫로서 寶花로 六區의 花房을 만들고 그 속에 六瓣의 蓮華紋이 各各 配置되었는데 其外 胴體의 空間全面에는 寶相花紋과 圓紋으로 메꾸었고 瓶의 口緣과 臺의 底部에는 各其 八葉蓮瓣으로 둘러져 있다. 蓋의 外部에는 陵線으로 區分된 八角을 이루고 있어서 마치 八角浮屠의 屋蓋形을 聯想케 하고 있는데 區間에는 每區마다 蓋邊에서부터 寶花로서 切半의 花房을 만들고 그 속에 蓮華三瓣만이 彫鏤되어 있다. 蓋中央에는 八葉蓮瓣



으로 鈕座를 만들고 그 中央에 圓形四段의 塔形鈕가 달려 있는데 舍利塔의 相輪部를 模倣한 듯하며 蓋裏面에는 朱漆을 하여 色彩가 鮮明하게 남아 있다. 瓶은 鑄造時에 鎔液이 잘 들지 않은 탓인지 數個所에 구멍이 뚫